

사랑스런 追憶

봄이 오든 아침, 서울 어느 쪼그만 停車場에서
希望과 사랑처럼 汽車를 기다려,

나는 푸라트 罍에 간신한 그림자를 터트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속을 속, 속, 햇빛에 빛워, 날았다.

汽車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 다 주어,

봄은 다 가고—— 東京 郊外 어느 조용한 下宿房
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希望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汽車는 몇 번이나 無意味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停車場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五月十三日.

사랑스런 추억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트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 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
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5.13.